[해외축구]"루니는 지난 10년간 잉글랜드 최고의 선수" 무리뉴 감독 극찬

등록 2016.06.09 11:33:20 | 수정 2016.12.28 17:11:17

【서울=뉴시스】박범신 기자 = 신임 조제 무리뉴(53)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팀 주장 웨인 루니(31)를 극찬했다.

스포츠· 연예 전문 ESPN은 9일(현지시간) "무리뉴 감독이 웨인 루니를 잉글랜드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평가하고 그가 지난 10년간 이 같은 명성을 지켜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무리뉴 감독의 루니에 대한 평가는 11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벌어지는 잉글랜드의 유로2016 첫 경기인 러시아전과 오는 8월 3일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리는 맨유와 애버턴의 자선경기를 앞두고 나왔다.

루니는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선발 기용 여부와 포지션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리뉴 감독은 "루니는 지난 10년간 잉글랜드 최고의 선수였고 지금도 만찬가지다. 8월 자선경기는 그가 이룬 업적을 기리는 것이 될 것이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지난달 27일 루이스 판 할 감독의 후임으로 지휘봉을 잡아 8월 에버턴전을 통해 올드 트래포드에 데뷔한다.

에버턴과의 8월 자선경기는 웨인루니재단이 주최하는 친선경기다.

루니는 맨유가 자신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팀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지난 2002년 에버턴을 통해 프로에 데뷔했고 2년후 맨유로 이적했다.

자선경기를 통해 모아질 500만 파운드(약 83억6000만원)의 기금은 웨인루니재단을 통해 불우아동 등을 돕기 위해 4개의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7parkb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